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관한 人口 關聯 研究

- 年齡構造의 變化와 發展計劃 — 現在와 未來에의 意味 —

Implications of Changing Age Structure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 Planning (Population Leads No.25,1987)

- 出産力의 社會·經濟的 決定要因 — 研究結果에 對한 評價와 意味 —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 Assessment of Findings
and Implications (Population Research Leads No.26,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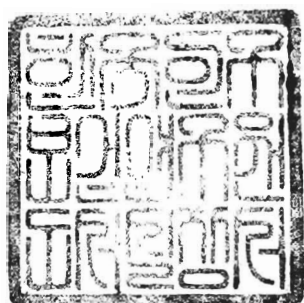
- 人口政策樹立과 事業施行에서의 弘報·啓蒙·教育

IEC in Population Policy Formulation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Population Research Leads No.27,1987)

1988

ESCAP POPULATION PUBLICATIONS TRANSLATION PROJECT
Co-ordinated by the
Clearing-house and Information Section,
POPULATION DIVISION ESCAP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 HEALTH
UNITED NATIONS ECONOMIC & SOCIAL COMMISSION
FOR ASIA & THE PACIFIC



目 次

年齡構造의 變化와 發展計劃	3
－ 現在와 未來에의 義味 －	
出産力の 社會・經濟的 決定要因	29
－ 研究結果에 對한 評價와 意味 －	
人口政策樹立과 事業施行에서의 弘報・啓蒙・教育	57

年齡構造의 變化와 發展計劃

—現在와 未來에의 意味—

이 글은 ESCAP Population Research Leads No.25 인 Implications of Changing Age Sturcture for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 Planning ”을 번역한 것으로 1987 년 4 월 ESCAP 제 43 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目 次

高成長段階	10
轉移段階	16
○ 學校年齡人口	
○ 勞動力	
○ 移動 및 都市化	
○ 女性役割의 變化	
○ 發展政策에의 意味	
低成長段階	23
○ 年齡構造	
○ 勞動力에의 意味	
○ 人的資源에의 意味	
○ 保健 및 死亡力	
○ 老齡化	
發展計劃	25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지난 二十年間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出産力과 死亡力이 감소함으로서 國家人口의 年齡構造에 큰 變化를 가져왔는데, 이같은 變化는 거의 모든 社會-經濟 都市 計劃樹立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1970 年까지만 해도 이 地域의 粗出生率은 人口千名當 40 정도였으나 1980 - 1985 年동안은 27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이 빠른 出産力の 減少 때문에 人口政策樹立 및 國家發展計劃에 人口要因을 統合시키는 作業이 종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政府事業으로 人口學的 趨勢를 바꿀 수 있다는 例는 國家發展計劃에서 人口가 더 이상은 단순한 外生變數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嬰幼兒 生存率에 특히 影響을 미치던 死亡力은 감소하나 出産力은 종전처럼 높은 경우에는 15 歲 未滿人口比가 약간 증가하는바, 1950 年の 37 %에서 1970 年에 40 %로 증가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出産力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985 年頃에는 35 %로 떨어졌다.

이같은 變化는 國家發展計劃, 특히 教育和 保健部門의 計劃樹立時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 높던 出産力이 最近에 와서야 줄어든 까닭에 經濟活動人口比는 1975 年 56 %에서 1985 年에 61 %로 증가되었으며 2,000 年頃에는 65 %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經濟活動人口比를 위한 雇傭機會의 제공여부가 앞으로 70 年間 이 地域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몇몇 國家에서는 1960 年頃에 이미 出生率과 死亡率이 다 낮아졌는데, 이런 나라는 現在 人口의 老齡化 또는 65 歲以上 老人人口의 높은 比率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計劃目標로서 人口成長率 자체의 중요성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地域的 分散과 같은 다른 人口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지역 出生力 減少의 주요 두 요인은 結婚年齡의 增加와 組織化된 家族計劃事業이다. 그러나 남아시아의 경우 出生力 減少에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國家의 TFR이 아직 5~7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結婚年齡이 아직 20 歲 未滿인 남아시아 國家를 제외하고는 結婚年齡에 따른 出生力 減少 効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다수 國家는 年齡構造의 變化 때문에 成功的 家族計劃事業이나 다른 관련 社會-經濟的 變化를 통해 젊은 婦人의 出生力을 급속히 떨어지게 하지 않는한 제 2 世代의 ‘베이비붐’으로 出生力 低下 속도가 늦어질 잠재성은 농후하다. 오늘날 몇몇 나라의 높은 成長率은 높은 出生力뿐만 아니라 높은 出生力과 과거 三十年間 감소된 死亡力의 복합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2000 年前까지의 人口成長은 전적으로 出生力の 低下 人口構造의 變化에 달려있다. 과거의 추세로 보면, 全體 女性人口 중 可娠期에 들어가는 人口比가 상당히 높은데 이 比率는 2000 年까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 地域 대다수 國家에서 다음 世代의 女性數가 급격히 줄어든다 해도 出生率은 여전히 높고 總出生數는 더 많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成長率은 전혀 變하지 않게 된다.

政策的 意味

이와같은 결과는 計劃樹立 目的에서 볼때 몇가지 政策的 意味를 지니는바,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成長率의 부드러운 감소속선은 실제적 경험 이 아니다. 앞으로 이 地域의 出產水準 감소 속도는 과거 十年間처럼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年 단위의 成長率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社會部門에서 下部構造의 開發, 서비스 시설 및 事業의 開發 計劃樹立 時에는 관련 人口成長率뿐만 아니라 절대적 人口規模도 고려해야 한다. 家族計劃 서비스를 擴大하려할 때는 可妊女性の 數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셋째, 出產力 水準을 계속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高出產 國家에서는 社會-經濟 發展을 가속화 시킴과 아울러 앞으로의 組織化로 家族計劃事業의 強化가 요구된다.

以外에도 여러가지 중에서 특히 學校人口, 勞動人口, 移傳, 都市化, 女性の 役割, 保健 및 死亡力, 老齡化 등의 變化樣相과 관련되는 여러 政策的 意味를 고려해야 하겠다.

年齡構造의 變化와 發展計劃

아시아-태평양 지역 國家 대부분이 높은 出生率을 보이던 20 ~ 30 年前에는 人口政策이 주로 出產力 減少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1960 年代에 政府家族計劃事業이 시작되고 社會經濟 發展이 지속적으로 이룩됨에 따라 出生率은 계속 줄어들어 왔다. 1970 年까지만 해도 人口 千名當 40 으로 추산되던 이지역 粗出生率은 1970 ~ 1975 年間에는 36 으로, 1980 ~ 1985 年間에는 27 水準으로 떨어졌다.

出產力の 이같은 減少는 政府事業이 人口學的 趨勢를 變化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人口가 發展計劃시 더 이상은 단순한 外生變數로 취급되어서는 안됨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出產力 減少는 國家 人口의 年齡構造에도 큰 變化를 가져오며, 이같은 큰 變化는 거의 모든 社會-經濟 分野 發展計劃에 影響을 주게 된다.

高成長段階

아시아-태평양 지역 出產力은 1970 ~ 1975 年間과 1980 ~ 1985 年間 급격히 떨어졌다. 즉 1970 ~ 1975 年間 5.1 이던 TFR 이 1980 ~ 1985 年은 3.5 로 떨어졌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이지역 TFR 이 1986 年에 3.2 로 추정되지만 南東아시아는 3.9 이고, 南아시아는 4.3 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出產力 減少는 組織화된 家族計劃事業과 結婚年齡의 증가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要因 역시 다른 地域과는 달리 南아

시아에서는 한계가 있었고, 또 몇 군데서는 逆效果를 내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같이 빠른 出産力 減少에도 불구하고 TFR이 5~7로 매우 높은 國家가 있다. 특히 南아시아의 경우 많다.

結婚年齡의 增加가 出産力 減少에 미치는 기여도도 限界에 다다르고 있는데, 아직 結婚年齡이 20歲 未滿인 南아시아 國家들은 예외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結婚年齡이 낮아지는 反對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그 例로 필리핀에서는 독신자의 結婚年齡(센서스나 서베이도 조사된 獨身者 比率에서 算出)이 1978년에는 24.4歲까지 올라갔으나 1983년에는 23.3歲로 떨어졌고, 스리랑카에서는 1975년 25.1歲에서 1981년에는 24.4歲로 떨어졌다. 또한 中國에서도 最近 結婚年齡 規制가 완화된에 따라 結婚年齡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結婚年齡의 低下로 스리랑카에서는 粗出産率이 1974년 人口千名當 27.5에서 1979년에 28.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필리핀에서도 人口 千名當 1975년에 36.3으로 증가했다.

한가지 지적할 점은 中國, 日本, 韓國이 포함된 東아시아에서는 이미 出産 水準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렵다는 점이다. 태평양 지역 국가는 상대적으로 出産力이 낮으나 人口가 적기 때문에 역시 아시아-태평양 地域 出産力 저하에 기여하는바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베트남과 함께 南아시아의 人口 많은 國家에서 出産水準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한 과거 10年間과 같은 빠른 속도의 出産力

低下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지역 대부분의 國家가 年齡構造의 變化도 第2世代 베이비-붐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해 있어서 家族計劃事業이 成功的 실시 및 관련 사회경제적 變化로 젊은 婦人들의 出產力은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는한 出產力 減少趨勢는 둔화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이 增加國家의 높은 成長率은 婦人 1人當 5~7 出生이라는 높은 出產力뿐만 아니라 높은 出產力과 과거 三十年間 낮아진 死亡力의 복합적 作用에 의한 것이다. 과거의 높은 出產力과 낮아진 死亡力은 즉, 전체 女子人口 중 可娠期 年齡 婦人比率이 높음을 뜻하는데 이比率은 2000年까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表1參照) 대부분의 나라가 다음 世代의 女子人口數는 그 앞세대보다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婦人當 出生兒數가 급속히 줄어든다고 해도 出生率은 여전히 높고 總出生兒數는 증가된 것이다. (表2參照)

그러므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앞으로의 出產力 水準의 減少速度는 과거 10年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 2000年까지의 人口成長은 전적으로 減少되는 出產力과 變化하는 人口構造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中國에서 可妊婦人比率은 54%에서 57%로 증가될 것이며, 인도는 49%에서 53% 인도네시아는 49%에서 55%로 각각 증가될 것이다.)

- 出産力 減少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특히 可妊期 婦人人口 (15 ~ 49 세)가 증가될 것이다. 2000 年頃에는 中國의 可妊婦人人口가 2 億 7 千 6 百 만에서 3 億 4 千 6 百 만으로 25 %가 증가될 것이며, 인도는 1 億 8 千 만에서 2 億 5 千 만으로 39 %가, 인도네시아는 4 千 百 만에서 5 千 8 百 만으로 41 %가 증가할 것이다.
- 出産力이 감소해도 대다수 국가에서 0 ~ 4 歲 人口數는 증가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에서 이 年齡 人口는 각각 1 億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表 2 參照)

이런점으로 보아 計劃樹立 目的에서 볼때 몇 가지 意味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經濟成長計劃樹立에서 가정하는 부드러운 감소 속선의 인구성장율은 실제 경향이 아니다. 앞으로 이 地域의 出産力水準 減少 速度는 과거 十年間처럼 빠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년 단위의 成長率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社會分野의 下部構造와 기타 서비스 시설 및 事業計劃을 樹立할 때는 관련 人口의 成長率 (例로 母子保健과 家族計劃 서비스의 경우 15 ~ 49 歲 婦人과 0 ~ 4 歲 幼兒)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대 人口數도 고려해야 한다. 10 年전에 出産率이 이미 낮아진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두 集團의 人口가 現在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例를 들어 家族計劃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可

Table 1: Female population (in millions): Medium variant

Country or area	Aged 15-34		Aged 35-49		Aged 15-49		All ages		Aged 15-49 Percentages of all ages	
	1985	2000	1985	2000	1985	2000	1985	2000	1985	2000
EAST ASIA										
China	199	213	77	133	276	346	514	612	53.7	56.5
Hong Kong	1	0.9	0.4	0.8	1.4	1.7	2.3	3	60.9	56.7
Japan	17	17	14	12	31	30	61	66	50.8	45.4
Mongolia	0.3	0.5	0.1	0.2	0.4	0.7	0.9	1.4	44.4	50.0
Republic of Korea	7.8	8	3	6	11	14	20	25	55.0	56.0
SOUTH-EAST ASIA										
Burma	6.6	8.8	2.6	4	9	13	19	25	47.4	52.0
Indonesia	29	39	12	19	41	58	84	106	48.8	54.7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0.6	0.9	0.2	0.4	0.8	1.2	2	2.6	40.0	46.1
Malaysia	2.9	3.7	1.1	2.0	4	5.7	7.8	11	51.2	51.8
Philippines	9.8	13.5	3.2	6.5	13	20	27	38	48.1	52.6
Singapore	0.5	0.4	0.2	0.4	0.7	0.8	1.3	1.4	53.8	57.1
Thailand	9.7	12	3.3	6	13	18	26	33	50.0	54.5
Viet Nam	11	15	3	7	14	22	31	42	45.1	52.4
SOUTH ASIA										
Afghanistan	2.4	4.0	1.0	1.6	3	5.6	7	12	42.9	46.7
Bangladesh	16	26	6	10	22	36	49	71	45.0	50.7
Bhutan	0.2	0.3	0.1	0.2	0.3	0.5	0.7	0.9	42.6	55.5
India	124	170	56	80	180	250	365	470	49.3	53.2
Islamic Republic of Iran	8	12	3	5	11	17	23	32	47.8	53.1
Nepal	2.5	4	1.5	1	3.5	5	8	11	43.7	45.4
Pakistan	17	24	6	10	23	34	48	67	47.9	50.7
Sri Lanka	3.0	3.3	1	1.7	4	5	8	10	50.0	50.0
PACIFIC										
Australia	2.6	2.8	1.4	2.2	4	5	8	9	50.0	55.6
Fiji	0.1	0.1	0.05	0.08	0.2	0.2	0.3	0.4	66.6	50.0
New Zealand	0.5	0.6	0.3	0.4	0.8	1.0	1.6	1.8	50.0	55.6
Papua New Guinea	0.5	0.8	0.2	0.4	0.8	1.2	2	2.3	40.0	52.1

**Table 2: Population (in millions) aged
0-4 years in 1985 and 2000:
Medium variant**

Country or area	1985	2000	Percentage change
EAST ASIA			
China	93.2	104.8	+12.4
Hong Kong	0.4	0.4	0.0
Japan	7.6	8.6	+13.1
Mongolia	0.3	0.4	+33.3
Republic of Korea	4.3	4.0	-7.0
SOUTH-EAST ASIA			
Burma	5.3	6.1	+15.1
Indonesia	22.5	22.4	-0.45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0.6	0.8	+33.3
Malaysia	2.2	2.4	+9.1
Philippines	8.5	9.6	+12.9
Singapore	0.2	0.2	0.0
Thailand	6.3	6.2	-1.6
Viet Nam	9.0	10.1	+12.2
SOUTH ASIA			
Afghanistan	2.6	3.9	+50.0
Bangladesh	17.3	20.8	+20.2
Bhutan	0.21	0.27	28.5
India	99.3	102.8	+3.5
Islamic Republic of Iran	7.9	8.5	+7.6
Nepal	2.7	3.5	+29.6
Pakistan	17.2	18.4	+6.9
Sri Lanka	1.9	1.7	+11.8
PACIFIC			
Australia	1.2	1.3	+8.3
Fiji	0.1	0.08	-20.0
New Zealand	0.25	0.27	+8.0
Papua New Guinea	0.5	0.6	+20.0

娠婦人數가 훨씬 더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보자.

인도의 경우, 2000年頃에도 現在の 避妊實踐率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政府는 1천 7백만의 婦人에게 추가로 家族計劃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避妊實踐率을 2배로 증가시키려면 (약 50%이나 현재 目標 보다는 낮음) 1억 2천 5백만명에게 家族計劃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現在 이같은 서비스 受容婦人數는 4천 5백만명이다. 그러므로 2000년 경에 避妊實踐 水準을 現在の 두배로만 늘리려고 해도 서비스 제공은 15년안에 3배를 증가시켜야 한다.

세제, 계속해서 出産力을 감소시키려면 특히 出産力이 높은 나라에서는 일정한 궤도에 오른 社會・經濟 發展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組織化된 家族計劃事業을 한층 더 強化시켜야 한다.

傳移段階

學校年齡人口

아시아-태평양 地域 여러 나라는 現在 出産率과 死亡率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變化하는 人口學的 傳移段階에 있다. 出産率과 死亡率은 중간수준이며 차츰 줄어들고 있다. 부르네이, 다루살람, 쿡제도, 피지, 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스리랑카, 태국이 모두 粗出生率이 人口 千名當 20~30 사이이며, 버마, 인도, 필리핀, 베트남도 곧 이 수준에 이를 것이다.(表 3 參照) 이들 국가는 특히 15세 미만 人口가 전체 人口의 30~40%에 달한다.(表 4 參照)

出産力이 감소하면 扶養人口比가 감소한다. 人口年齡構造가 扶養人口에 대한 기여는 15 ~ 64 歲 人口에 대한 15 歲 미만 및 64 歲 以上 人口의 퍼센트로 측정하는데, 페이지의 統計値가 큰 變化를 나타낸다. 出産力 減少에 따라 扶養比率이 줄어들어, 태국의 경우 1970 年の 경우 92 에서 1985 年에는 66 으로 줄었다.

出産力 減少는 또한 保健 서비스와 教育 計劃樹立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이 地域 전체에서 學校年齡人口의 증가가 공통된 현상이었다. 1985 年 현재 이 지역의 6 ~ 11 歲 人口數는 3 億 7 천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00 年 ~ 2010 年 사이에는 3 億 9 천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될 것이다. 물론 地域이나 國家에 따라서 보다 빠른 變化가 일어나는 등 차이가 있다.

教育에 關한 計劃도 出産 減少傾向으로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서 12 ~ 17 歲 年齡人口는 1985 年 3 億 9 천만명인데 1995 年에 3 億 6 천만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 年頃에는 4 億 정도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學校人口의 감소나 약간의 증가로 인해 現在 教育費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앞으로는 진학율이 증가하고 教育의 質은 向上될 것이다.

勞動力

出産力이 떨어지는 傳移期間 동안에는 15 歲 ~ 64 歲 人口比가 즉, 經濟活動人口가 유례없이 많아진다. 이 年齡層의 人口는 1980 年 57 퍼센트에서 2000 년경에 69 퍼센트로 증가될 전망이다.

經濟活動人口는 전체 人口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이며 정확히 말해서 그 중에서도 젊은 年齡層의 노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UN 추계에 따르면 1980년~2000년 사이에 15~39歲 年齡 人口는 9억 7천만에서 14억 4천만으로 증가되고, 한편 40~64歲 人口는 4억 6천만에서 7억 5천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다. 1980년~2000년의 전체 人口成長率은 1.5 퍼센트일 것이나 15~39歲 人口 成長率은 2.0 퍼센트, 40~64歲 人口成長率은 2.5 퍼센트로 추계된다.

出産力이 떨어지고 있는 現 추세는 2000년경에는 젊은 勞動人口 成長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나이가 많은 勞動人口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2000년~2020년 동안의 전체 인구는 年間 0.9 퍼센트가 증가될 것인데 15~39歲 年齡集團은 0.4 퍼센트의 年間增加率을 나타내며, 40~64歲 人口는 年間 2.5 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젊은 勞動人口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충분한 雇傭機會를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년 동안에 15~39歲 人口가 4억 7천만명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年齡構造가 2000년以後에는 社會・經濟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扶養比는 낮고 勞動人口數가 全體人口의 상당수를 차지한채 점차로 증가될 전망이다.

移動 및 都市化

都市化는 低出産力과 관련이 있으며, 結果로 나타나는 人口年齡構造가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에 기여한다. 15 ~ 34 歲 人口의 이같은 移動率은 다른 年齡人口 移動率에 비해 보통 2 ~ 3 배가 된다.

都市 거주 인구비율로 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都市化는 아시아에서 農村人口比率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85 年에는 人口 5 백만이 넘는 特大都市가 16 이 되며 그중의 5 개 도시는 人口가 1 억以上이 될 것이다. 2000 년경에는 人口 5 백만이 넘는 都市가 또 다섯개가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가 都市成長을 둔화시키는 政策을 채택할 것이다.

女性役割의 變化

出産力 低下는 女性의 役割 및 地位 變化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러 研究에서 出産力の 제 1 決定要因은 婦人의 教育水準이다. 또한 雇傭地位, 所得水準, 都市雇傭여부, 移動經驗과 같은 다른 여러 要因도 관련이 있다. 사실 많은 연구의 주요 목적이 어느 要因이 低出産原因이며, 어느 要因이 단지 相關關係를 갖는가를 알아보려는데 있다. 흔히 因果關係는 두 가지 方向이다. 취업하고 돈을 벌기 원하는 女性은 子女를 조금 갖게 될 것이며, 또한 子女數가 적은 女性은 雇傭機會를 기대하게 된다.

低出産力은 女性 地位와 관련된 일련의 여러 要因들 중의 한 要因이다. 일련의 여러 要因들이란 곧 近代化의 측정으로 사료되는

Table 3: Population, growth rate,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in 1985 and population projections to the year 2000 for countries or area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Country or area and region	Mid-1985 population (thousands)	Average annual growth rate (percentage)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Total fertility rate	Population projected to 2000 (thousands)
ASIA – PACIFIC	2 711 856	1.68	26.4	9.5	3.3	3 382 805
EAST ASIA	1 228 815	1.16	18.2	6.6	2.2	1 445 389
China	1 059 521	1.21	18.7	6.7	2.2	1 255 895
Hong Kong	5 417	0.99	14.4	4.8	1.6	6 350
Japan	120 760	0.62	12.3	6.1	1.8	129 725
Mongolia	1 908	2.75	35.3	8.0	5.0	2 837
Republic of Korea	41 209	1.53	23.0	6.2	2.4	50 852
SOUTH-EAST ASIA	399 934	2.01	30.8	10.6	3.9	521 077
Brunei Darussalam	232	4.10	27.9	3.3	–	354
Burma	37 699	1.96	33.2	13.7	4.5	49 749
Indonesia	166 440	1.85	30.4	12.0	3.8	211 367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3 614	2.47	39.5	14.8	5.6	5 082
Malaysia	15 557	2.29	29.0	6.2	3.6	20 497
Philippines	54 498	2.33	32.1	8.0	4.2	74 057
Singapore	2 558	1.14	16.4	5.2	1.6	2 947
Thailand	51 705	1.88	26.4	7.6	3.2	64 543
Viet Nam	60 347	2.18	32.2	9.8	4.3	82 709
SOUTH ASIA	1 059 030	2.16	34.3	12.6	4.6	1 386 869
Afghanistan	16 519	2.26	48.2	25.6	6.8	26 035
Bangladesh	101 147	2.68	43.3	16.6	5.8	145 800
Bhutan	1 417	2.03	37.7	17.4	5.4	1 893
India	762 065	1.99	31.5	11.6	4.2	964 072
Islamic Republic of Iran	44 632	2.83	39.7	11.4	5.4	65 161
Maldives	183	3.70	46.3	9.3	6.6	279
Nepal	16 482	2.31	40.6	17.6	6.0	23 048
Pakistan	100 380	2.71	41.7	14.6	5.6	140 961
Sri Lanka	16 205	1.64	26.2	6.0	3.1	19 620
PACIFIC	24 077	1.30	19.2	7.9	2.4	29 470
Australia	15 721	1.13	15.5	7.1	1.9	18 718
Cook Islands	17	–1.70	23.8	7.4	4.1	17
Fiji	691	1.73	29.2	5.2	3.3	834
Guam	114	1.36	28.7	4.2	3.2	137
Kiribati	63	1.76	–	–	–	77
Nauru	8	0.00	–	–	–	8
New Zealand	3 261	0.79	15.7	7.8	1.9	3 730
Niue	3	–0.10	24.0	8.0	–	3
Papua New Guinea	3 362	2.24	35.0	12.5	5.3	4 753
Samoa	160	0.60	31.4	7.5	4.5	175
Solomon Islands	268	3.30	–	–	–	447
Tonga	109	2.12	37.9	9.0	–	139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154	2.39	–	–	–	204
Tuvalu	8	1.28	34.8	7.6	–	10
Vanuatu	138	3.20	45.0	12.0	6.5	218

Source: 1985 ESCAP Population Data Sheet.

Table 4: Male and female life expectancy, infant mortality rate, percentages aged 0-14 and 65+ years, and dependency ratio, in 1985, for countries or areas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Country or area and region	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Infant mortality rate	Percentage aged 0 - 14	Percentage aged 65+	Dependency ratio
ASIA - PACIFIC	61.3	63.2	80	34.5	4.8	64.7
EAST ASIA	68.0	71.0	34	28.9	5.7	52.9
China	67.4	69.9	36	29.7	5.3	53.8
Hong Kong	72.9	78.5	10	23.6	7.5	45.1
Japan	74.5	80.2	6	21.6	10.2	46.6
Mongolia	61.3	65.4	49	41.6	3.2	81.2
Republic of Korea	65.4	71.9	27	31.2	4.0	54.3
SOUTH-EAST ASIA	56.3	59.9	74	38.7	3.6	73.3
Brunei Darussalam	70.1	72.7	12	38.1	2.9	69.5
Burma	51.2	54.3	106	39.0	3.8	74.8
Indonesia	53.4	56.2	79	38.7	3.5	73.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49.4	52.4	116	42.5	3.1	83.8
Malaysia	65.8	69.8	28	37.8	3.8	71.2
Philippines	61.0	64.6	56	40.4	3.4	77.9
Singapore	69.7	75.2	9	24.4	5.2	42.0
Thailand	61.0	66.9	53	36.6	3.6	67.2
Viet Nam	57.7	62.1	72	39.9	4.0	78.3
SOUTH ASIA	55.3	55.0	110	39.6	4.0	77.3
Afghanistan	37.6	38.4	189	41.8	2.7	80.2
Bangladesh	49.2	48.2	124	45.7	3.1	95.3
Bhutan	47.6	46.1	134	40.0	3.3	76.4
India	56.7	56.6	105	38.1	4.3	73.6
Islamic Republic of Iran	58.0	58.3	111	42.7	3.3	85.2
Maldives	57.0	58.0	68	46.3	2.7	96.1
Nepal	47.6	46.1	134	43.3	2.9	85.9
Pakistan	52.0	50.2	115	43.6	2.8	86.6
Sri Lanka	67.6	70.9	34	34.5	4.6	64.2
PACIFIC	68.8	74.7	28	27.7	8.7	57.2
Australia	72.0	79.0	10	23.9	10.3	52.0
Cook Islands	64.0	70.0	12	43.5	4.4	91.9
Fiji	67.6	71.9	29	37.2	3.5	68.6
Guam	-	-	8	34.9	2.8	60.5
Kiribati	-	-	-	-	-	-
Nauru	-	-	-	-	-	-
New Zealand	71.3	77.5	12	24.7	10.3	53.8
Niue	-	-	-	46.1	6.6	111.4
Papua New Guinea	52.2	53.8	68	41.7	2.1	77.9
Samoa	62.2	65.5	42	48.2	3.0	104.9
Solomon Islands	-	-	-	48.4	3.3	107.0
Tonga	-	-	-	-	-	-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	-	-	46.8	3.6	101.6
Tuvalu	-	-	-	-	-	-
Vanuatu	56.2	53.7	94	45.8	2.9	94.9

Source: 1985 ESCAP Population Data Sheet.

바이다. 出産力을 낮추기 위해 家族計劃을 한다함은 女性 스스로가 家族 모두에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計劃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특기할 점은 과거 二十年동안 女性 勞動 參加가 증가되는 地域에서 특히 出産力의 감소 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다.

發展政策의 意味

研究結果에 의하면 效果的인 國家 家族計劃事業은 社會・經濟 發展에 따른 出産力 減少 이상의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같은 事業이 發展이란 맥락에서 利得을 보았으며 發展과 事業의 相互作用으로 出産力 減少 効果는 事業의 效果가 강력하고 동시에 發展이 이루어진 곳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出産力 減少에 따른 人口年齡構造의 變化로 現在 教育質만으로도 初・中校의 教育을 改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높은 出産力으로 인해 經濟生活年齡 人口의 數는 크게 증가되므로 적절한 教育 및 訓練을 위한 추가 부담이 요구된다. 젊은 사람에게 教育機會를 더 갖게 함으로써 勞動人口로의 流入時期를 늦추고 아울러 여러 發展된 技術分野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자질도 갖추게 된다.

教育計劃樹立家は 또한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動趨勢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移動은 경우에 따라서는 農村의 學校年齡人口를 감소시키고(傳出된 學校年齡人口가 자연증가율을 능가할 경우) 동시에 都市 學校年齡人口를 증가시킨다.

低成長段階

年齡構造

ESCAP 지역 5 개 國家에서 出産力이 대체수준에 미달되고 있고, 따라서 어린 年齡集團人口比率이 낮다(表 3, 表 4 参照).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日本,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0 ~ 14 歲 年齡人口比率이 22 ~ 25 퍼센트 수준이다. 이들중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는 65 歲 以上 人口가 전체의 10 퍼센트 이상이나 된다. 2000 年頃에는 日本人口의 15 퍼센트가 65 歲 以上이 되고 2000 年에는 20 퍼센트로 증가될 전망이다. 中國과 韓國의 出産力도 대체수준에 가까우며 人口의 老齡化 過程도 이들 나라의 初期 상태이다.

勞動力에의 意味

出産力이 계속 낮아지면 國家 勞動力 次元에서도 주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年齡構成의 變化는 勞動力 擴大比率뿐만 아니라 勞動人口 年齡構造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日本도 1980 年 現在 勞動人口의 49 퍼센트가 40 歲 以上인데 2000 年에는 56 퍼센트, 2020 年에는 58 퍼센트로 증가한다. 中國에서도 最近에 와서 出産力이 떨어짐에 따라 勞動人口의 老齡化 現象은 아직 水準은 낮으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40 歲 以上 勞動人口比率이 1980 年에 28 퍼센트이나 ILO 추계에 따르면 33 퍼센트이고 2020 年에 47 퍼센트로 증가될 전망이다.

人的資源

아시아-태평양 地域國家들의 勞動人口 成長率이 감소되고 老齡化됨에 따라 그들의 相對的 經濟 利益이 變化하는 등 人的 資源開發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年齡이 많고 서서히 증가하는 勞動力으로 비싼 勞動賃金에 기초한 農業이나 大量生産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며 그 대신에 高度화된 技術에 의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유리해진다.

技術水準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려면 직업에 알맞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교육 및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技術變化가 빠르고 勞動人口의 成長이 느리고 老齡化되는 속에서 經濟的 特性에 적합한 技術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向上과 再訓練이 필수적이다. 再訓練은 특히 低出產水準을 이룩하고자 하는 國家에서의 노동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문제이다.

勞動部門에서의 女性의 役割은 人口學的 傳移와 經濟構造의 變化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輸出 위주의 經工業을 기초로 한 經濟成長 過程에서 女性도 도구적이나 고도의 기술습득이나 관리자의 진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教育水準이 向上되고 經濟活動經驗의 축적으로 소수의 經濟役割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된다. 技術이 發達하고 高等教育이 國家 經濟成長에 필수가 됨에 따라서 國家는 모든 것을 그나마 人的 資源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 기여자도 무시할 수가 있다.

保健 및 死亡力

出産力과 死亡力이 낮으면 젊은 扶養人口比率이 줄어든다. 人口構造의 變化와 함께 부분적으로는 産業化와 관련하여 死亡構造 原因에 變化가 있게 된다. 政策樹立者들은 經濟活動年齡人口의 保健을 向上시키기 위해 이런 문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老齡化

이 지역의 社會・經濟的 特性으로 보아 부모는 子女에게 老後에 보살펴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러 農村地域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道市로 이전함에 따라 마을에 남은 老人을 보살피는 일이 문제가 된다. 公共住宅 政策은 3~4 歲代 家口를 고무할 필요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老人을 위한 양노원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사는 老人이나 老人을 모시고 사는 家族을 위한 支援政策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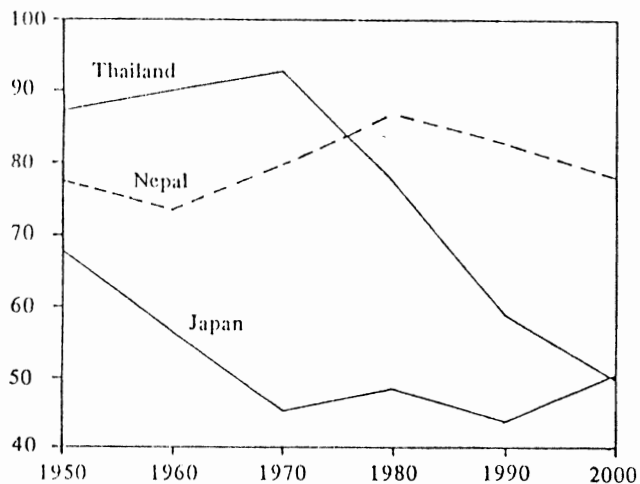
또한 增加하는 임금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일정 所得을 갖을 수 있도록 적합한 退職 및 年金制度를 고려해야 한다. 老人을 보살피는데 자선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하며 정부는 이들 기관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 및 기타 支援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격려해 줄 수 있다.

發展計劃

아시아-태평양 地域의 發展計劃을 세울 때 人口年齡構造의 變化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人口의 年齡構造의 變化는 學校年齡人口比, 經濟活動人口比, 可妊期人口比, 老人人口比의 變化와 밀접하

다. 年齡構造의 變化는 計劃樹立 및 여러가지 方法으로 고려된다. 例를 들어서 장기적인 出産力 低下의 結果로 學校年齡人口比가 줄어들면 취학이 떨어지게 되고 그 結果로 教育費用이 많이 필요치 않게 된다. 人的 資源을 包含해서 이런 資源의 再分配는 보다 效率的인 利用을 위해 꼭 필요하다. 人口學的 轉移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老人人口比率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대다수가 경험은 풍부하겠으나 나이가 많은 것을 뜻한다. 保健 및 다른 사회 서비스가 보다 더 요구되며, 先進開發國에서는 退職한 勞動者를 위한 연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Dependency ratio, Japan, Nepal and Thailand, 1950 to 2000



Source: Population projections prepared by the ESCAP Population Division, 1986.

이런 직접적인 문제들 以外에 年齡構造의 變化는 각기 다른 年齡의 사람들이 扶養比率의 變化에 따라 消費과 저축 패턴이 달라지게 되고 아울러 소비와 저축 패턴 變化에 따라 投資가 달라지게 됨으로 소비와 投資 패턴에도 變化가 오게 된다. 따라서 生産, 消費, 投資, 分配 等を 計劃할 때는 年齡構造의 變化를 고려해야 한다.

出産力の 社會・經濟的 決定要因

—研究結果에 對한 評價와 意味—

이 글은 ESCAP Population Reserch Leads No.26 인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Assessment of Finding and Implications”의 번역으로 네덜란드 통계연구소의 J.G.Cleland 가 1987 년 1 월 태국 푸케에서 열린 고위 정책수립자와 사업 관리자를 위한 인구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간추린 것이다.

目 次

序 論 (국가수준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36
個人과 地域社會 水準 결정요인	42
出産 選好 態度	48
結 論	51
政策的 意味	54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아시아·태평양 지역 結婚 出産力 減少의 주요 要因으로 避妊實踐과 女性 結婚年齡의 증가를 들수 있다. 그러나 과거 15年間 出産力 減少에 관한 論議는 매우 限定된 經濟理論에 국한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出産力은 1次的으로 子女에 대한 실질 또는 인식된 經濟 費用·效果가 變化함에 따라 달라지며, 出産調節 手段은 避妊 增加로 減少速度를 빠르게는 하지만 부수적인 문제일뿐 再生産 자체를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出産力에 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보다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國家, 地域社會 및 個人 水準에서 多様な 社會·經濟的 決定要因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國家 水準에서의 社會·經濟的 決定要因으로는 社會發展, 安定動機, 死亡率 減少, 教育, 成人의 文字解讀, 女性地位를 들수 있다. 地域社會와 個人 水準에서는 家庭生活 관련 經濟 要因, 家庭雇傭과 子女 効用, 土地所有, 女性雇傭, 都市化, 父母教育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出産力 選好態度를 고려하였다.

아시아에서는 고유 文化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얼마나 開放的인가에 따라서 避妊에 대한 態度가 달라지는데 이 태도가 出産力 變化에서 주요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初期 出産力 減少 段階에서는 원치않는 妊娠으로 부터 夫婦를 解放시키는 避妊受容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避妊受容은 避妊에 대한 夫婦의 態度에 달려있다. 또한 初期에는 地域과 文化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으로 特徵지워진다. 그러나 政府의 公式的 家族計劃事業이 出産力 變化 速度와 變化의 시작 시기에 영향을 준다.

政策的 意味

이같은 結婚出産力 減少 決定要因 分析은 政府에 結果적으로 出産力を 자신있게 낮출수 있는 社會・經濟的 手段을 제공하는것 같다. 그러나 보다 넓고 장기적 안목에서는 새로운 知識과 아이디어를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하는 教育이 再生産 變化의 주요 社會的 決定要因이다.

公式的 教育의 擴大가 出産力에 合理的이며 확실한 영향을 주나 世代間的 격차로 어려움이 있다. 現在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學生이 커서 父母가 되기 전까지는 出産力이 기대했던바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成人教育과 地域社會 活動이 훨씬 짧은 시간안에 公式的 學校教育과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을 만한 理由가 많다.

지금까지로 봐서 短期的으로는 出産力 調節 手段의 증가가 出産力 減少의 가장 좋은 方法이다. 아시아 몇몇 國家에서는 再生産調節이 완전히 受容되지 않고 있으며, 또 몇 나라에서는 出産間隔과 家族計劃이 단 한가지 方法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政策은 우선적으로 出産을 조절하는 것이 편리하며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正

當함을 널리 알려야 하고 또한 서비스의 質과 범위를 向上시켜야 한다.

방글라데쉬의 말다브 지역의 경험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발이 늦은 지역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른 地域에서는 家族計劃原理에 대한 受容보다는 再生産 改革에서 뒤떨어진 低所得層・教育水準이 낮은 사람 및 農村居住者에게 서비스를 擴大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出産力の 社會・經濟的 決定要因

이 論文의 目的은 出産力에 대한 社會・經濟的 要因의 影響력을 평가하려는 데 있다. 우선 두가지 근본적인 구별을 해야 하는바, 自然出産力과 調節된 出産力の 區別, 그리고 總出産力과 結婚出産力の 區別이다.

自然出産力은 夫婦가 避妊使用을 통한 意識적 목적적 規制없이 하는 人間 再生産을 일컫는다. 歴史的으로 그 水準은 매우 多様한데 일차적으로 結婚과 生育양상에 따라 變化한다. 그러나 전체적 出産力 明에 이들의 要因의 影響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結婚한 夫婦의 避妊이 주요 要因으로 간주되어 왔고, 따라서 出産力 減少의 기대는 일차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理由에서 本 論文의 범위는 總出産力이 아닌 結婚出産力에 국한하였다.

序 論

특히 아시아에서 女性의 結婚年齡의 증가가 出生率 감소에 큰 役

割을 한다. 그러나 結婚은 結婚後 妊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要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증거가 分明하다.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결국은 갖게될 子女數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結婚을 미루지는 않는다. 또한 結婚을 늦게한다고 出産率이 낮은 것도 아니다. 女性이 25歲에 結婚한다고 5名이나 그 以上の 子女를 못둔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 15年間 出産力 減少 原因에 대한 論議는 限定된 經濟理論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이 理論에 의하면 出産力은 一次的으로 子女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經濟的費用·效果의 變化에 대한 反應이다. 또한 出産 調節 手段은 부수적인 것으로 避妊의 增進이 감소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再生産의 變化 자체를 주도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論文은 앞에서와 같은 主張, 즉 出産力 減少의 決定論的 觀點이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본다. 이같은 理論으로는 과거 二十年間의 人口學的 事件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經驗的 記錄을 자세히 살펴보면 出産力 減少 原因에 대해 아주 다른 결론을 내릴수가 있다.

歴史的으로 보면 結婚出産力이 일단 감소(10%감소가 일반적 기준)하기만 하면 한층 減少는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出産力 감소 시작 또는 직전의 사회·경제적 상황, 특히 공통되는 發展의 분기점을 찾아내서 說明하려는 努力을 기울이는 일은 조금도 놀랄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같은 일이 실패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유럽의 경우 크노델과 반드윌레(Knodel & Van de Walle)는 國家 社會·經濟的 發展 水準은 분명히 出産力이 減少하기 시작한 시기와 사실상 아무런 관련

도 없음을 증명하였다.

特定 지역에서 나타난 近代化와 出産力 間の 明白히 相關性도 다른 새로운 要因, 즉 政府의 家族計劃 增進에 의한 人口成長 調節 事業이 들어가면 사라진다.

都市化, 所得, 에너지消費, 農業勞動人口比率 등과 같은 發展指數는 그 效果가 시차가 있던 없던간에 出産力 減少 초기에만 약간의 상관성을 나타낼 뿐이다. 아프리카와 같이 開發이 가장 안된 地域의 出産力 水準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남부지방과 같은 가난하고 농사가 주업인 곳에서는 出産力이 상당수준 떨어진 반면에 中東의 훨씬 부유하고 都市化된 國家에서는 出産力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막연한 巨視經濟指數는 人口傾向의 예측력이 약함을 나타낸다.

이같은 經濟的 분기점 찾기의 실패로 社會的 發展의 분기점 찾기로 초점이 옮겨졌다. 스리랑카의 例와 당시 平等的 經濟政策을 쓰던 초기 變化段階의 國家의 영향을 받아 레페토 (Repetto and others) 등은 平均 所得보다는 所得分配가 出産力의 보다 중요한 決定要因이라는 견해를 폈다. 그러나 브라질과 같이 富와 所得이 극히 不平均할 곳에서도 出産力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봐서 所得分配도 결정적인 要因은 아니다.

安定 動機로 出産力이 높다는 것이 出産力 變化段階에서 여러가지를 說明하는 要因으로 떠오른다. 여지껏은 이상하리만큼 간과되어 왔던 문제다 子女나 친족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老人比率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資料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찾기 어렵다. 50 개 國家를 포함한 엔트위슬과 위네구덴 (Entwistle & Wineguden)의 대규모 연구에서 연금

에 소요되는 政府支出과 低出産力이 相關性을 보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要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만한 증거가 약하다. 최근 뉴겐(Nugent)의 포괄적인 한 연구에 의하면 명백한 증거는 약하고 연구결과는 때때로 相反된다는 결론이다.

가장 자주 분석되는 社會發展 指數가 기대수명과 교육이다. 이들 모두 國家 水準에서 經濟指數보다 出産力 減少와 높은 相關性을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多樣한 결과를 보인다.

死亡力 低下도 古典的 變合理論의 주요 부분이다. 死亡力 특히 嬰兒死亡力の 低下는 여러 분명한 이유에서 出産力 低下를 앞서 가거나 또는 자극한다. 그러나 과거 유럽의 경우나 現在 開發途上國을 봐도 그런 직선적인 관계가 存在한다는 主張이 타당치 않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약하긴 하여도 死亡力 變化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減少되는 死亡力은 빠른 人口成長率에 책임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政府의 人口政策變化에까지 연결된 까닭에 대부분의 경우가 組織화된 政府 家族計劃事業의 實態이다. 정치적 분위기를 바꿈으로서 死亡力 減少가 出産力 減少 촉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幼兒死亡力 水準도 아들을 두려는 문화적 욕구가 강한 곳과 영구 피임방법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低出産力の 강한 방해물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런 곳에서는 부모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을 수 있

다는 위험을 갖느니보다 넉넉한 家族規模를 갖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

또다른 자주 분석되는 社會發展 指數인 教育도 두가지 측면을 지니는바, 成人의 文字解讀과 教育水準 그리고 청소년인구의 學校登錄이다. 成人의 文字解讀은 出產力 變化의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강력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文字解讀率 자체의 높은 比率은 結婚出產力 低下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成人 教育水準의 向上은 장기적인 문제로서 出產力을 낮추기 위해 政府가 당장 원하는 매력적이고 즉각적인 政策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教育은 아이들이 生産 勞動에 참여치 못하게 하며 父母의 養育費用을 증가시키므로써 出產力에 보다 즉각적인 效果를 갖는다. 그러나 不幸스럽게도 現在 증거들이 이런 기대를 강력히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기대수명이나 教育과 마찬가지로 女性地位도 出產力 低下 시작의 주요 要因으로 자주 論議된다. 이 문제는 妊娠에 맞서는 것이 女性이며 家族規模의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도 女性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기대수명이나 教育과는 달리 女性地位는 규정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워 연구결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國家 전체로 볼때 女性 취업은 出產力 變化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나 취업 그자체는 地位의 한 측면이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모슬렘 人口의 높은 出產力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도 女性이 일체의 公的 生活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다는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宗教的 傳統은 다른 文化的 양상과 엉켜져있으므로 분리하여 보다 결정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제시할 수 없다.

要約하면 出産力 減少 시작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知識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다 가능케 한다. 자신있는 결론의 요약은 사회발전(기대수명, 문자해독률, 女性地位)이 경제발전(산업화, 소득)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出産力이 減少하기 시작할 무렵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地域的 文化的 樣相이다. 歴史的 觀點에서 볼때 避妊에 의해 유도되는 出産力 減少는 同一文化圈 내에서 퍼져가는것 같다.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는 變化가 빠르게 나타난 반면에 인도의 주변 대륙에서는 처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再生産 行爲를 變化시키는데 어떤 文化的 特性이 촉진 작용을 하며 또 어떤 要因이 방해물로 작용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될때까지는 이런 견해는 단지 자그마한 진실에 불과하다.

出産力 減少에 절대적인 社會·經濟的 障害란 없는 것같다는데서 낙관적인 견해가 나온다.

가난하고 文盟이며 자급적인 人口에서도 出産力은 減少되고 있다. 家族計劃 事業을 통한 政府의 간섭없이도 이들 低開發 상태에서 出産力이 減少하는가는 의문이지만 出産力이 감소했다는 사실 자체를 손상하지는 않는다.

個人과 地域社會 水準 決定 要因

과거 十二年間の 많은 연구가 個人, 家口와 地域社會 水準에서 出產力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經濟的 要因에 초점을 두어 왔다.

出產力 變化에 대한 經濟的 說明은 주로 出產力 減少를 야기하는 힘, 즉 子女養育과 관련된 費用과 여기서 나타나는 利益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出產力 減少는 일찌기 나타나며 가정생활 경제가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사료되는 地域社會와 家庭에서 더 뚜렷해진다. 이 論文에서는 또한 經濟라는 힘이 남긴 자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結婚出產力の 減少는 일반 大衆 學校教育의 발전이나 女性 취업기회의 증가로 子女 養育費가 증가된 곳이나 또는 社會保障이 잘 되거나 家內事業이 줄어들거나 土地所有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農業의 機械化로 子女에 대한 경제적 기대 기여도가 줄어든 곳에서 특히 減少되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때는 家庭과 非家庭 經濟 間의 出產力에서의 差異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WFS 分析에 따르면 子女養育 比率은 家口主가 自營業(또는 家族구성원에 의해 고용)이냐 아니면 일반 雇傭人이냐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경제적 중요성은 도시와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경제 조직보다는 家內事業이나 農業에서 子女의 勞動의 効用性이 강하다는 공동되고 알기쉬운 가정에 근거한다.

이런 가정은 틀릴 수도 있으나 연구결과가 出產力 減少의 子女効用理論

에 심한 의문을 제기케 한다. 이같은 회의는 地域社會 水準에서 家庭勞動의 중요성을 줄이는 農業의 機械化와 出產力 變化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土地所有의 분할(이 역시 子女의 經濟 가치를 감소시킴)이 家族크기의 減少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볼때 더욱 증가한다. 또한 가장 뚜렷한 出產力變化가 子女의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기대되는 勞動 집약적인 쌀 생산 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점이다.

많은 연구자가 女性雇傭이 주요 出產力에 영향주는 要因이라고 가정한다. 女性雇傭은 子女養育에 대한 매력적인 代案일 뿐만아니라 子女의 기회비용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女性雇傭과 出產力間의 相互 關聯性에 대한 집중적인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因果性의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最近에 WFS 자료가 웰러(Weller)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38개WFS 자료를 분석한 UN연구는 社會的 發展水準이 높은 곳에서만 近代部門의 취업경험과 平生 出產力間의 명백한 相關性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因果의 方向은 뚜렷하지 않다. 避妊實踐에서의 差異도 몇몇 國家에서만 통계적 의미를 보였다.

女性の 취업-出產力の 관계는 횡적 조사로는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出產力 變化가 단지 부분적으로 女性の 社會經濟에의 참여와 관련된다는 결론은 피할수 없을것 같다.

이같이 부정적 연구결과와는 달리 都市化와 父母의 教育은 出產力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都市-農村 間의 出產力 差異는 라틴아메

리카와 아랍지역에서 가장 심하며 都市居住 夫婦가 농촌에 비해 結婚出産力이 2~3 정도나 낮다. 아시아에서도 정도는 약하나 方向은 뚜렷하다. 그러나 예외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는 都市와 農村의 結婚出産力이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都市와 農村間의 出産力 差異의 半以上이 이들 家口의 教育 및 職業的 構成의 對比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都市化의 純 또는 잔여 効果는 知識의 차이와 家族計劃 서비스의 利用度 또는 특정 文化的 要因을 反映하는 結果라 하겠다. 대부분의 改革이 다른 地域에 퍼지기 전에 都市나 읍면 지역에서 시작되므로 家族計劃도 마찬가지로 것은 전혀 놀랄일이 아니다.

都市化와 出産力の 관련보다 더 실제적인 關心은 家族計劃 實踐과 出産力에 미치는 父母 教育의 영향이다. WFS 자료가 個人 水準에서 教育-出産力の 관련성에 대한 대량의 확신을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아랍 國家에서는 일제히 父母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出産力이 減少된다. 國民學校를 中退한 婦人도 國民學校 未就學 婦人에 비해 實踐率이 높기 때문에 妊娠하는 率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學校教育을 어느정도 받으면 특히 수유같은 出産 억제 요인의 부식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避妊의 증가로 완전 상쇄되지 않는다.

그러나 教育水準이 높은 경우에는 避妊效果가 짧은 수유로 인한 出産 증가를 능가하므로 결과적으로는 國卒이나 中學 入學 學力 婦

人보다 出産力은 훨씬 떨어지게 된다.

男便보다는 婦人의 教育이 出産力에 보다 강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일반적은 아니라도 상당히 유포되어 있는 教育-出産力 關係의 대한 여러가지 說明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國家에서 몇 년의 學校教育만으로도 쉽게 行態를 바꿀수 있기에 충분히 보이는 사실이 目的的인 미시 경제 현실보다는 教育을 통해 變化하는 인식, 사고, 기대를 충분히 反映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해석은 女性教育과 出産力의 關係가 教育에 따른 취업전망의 확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고용기회 및 간접적 자녀 양육비 등을 통해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로 더욱 뒷받침 된다.

또한 한정된 教育-出産力에 대한 經濟的 견해는 婦人의 教育이 嬰兒死亡率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로도 더 더욱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効果에 관련된 여러 증거는 관련 메카니즘이 生活水準이나 구매능력보다는 질병, 위생, 영양에 대한 지식과 태도라는 점을 보여 준다. 教育에 의한 이런 認識的 變化가 子女 生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子女 妊娠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效果를 지닐 것 이란 점은 놀랄일이 아니다.

經濟學者들이 出産力의 變化를 일차적으로 때로는 文化와 家庭狀況을 무시한채 子女避妊의 費用-利益으로 理解하려 하는 반면에 社會學者들은 이런 접근법에 대해 家庭 단위의 구조와 기능의 變化에 특히 초점을 두어 보완해 왔다. 擴大된 가부장적 家族은 높은 出産力

에 관심을 기울려 왔다. 이런 의무의 굴레가 끊겨 小 핵가족이 되고 정치, 經濟生活에 대한 친족의 지배가 비가족적 기구로 대체되기 전까지 出產力은 높게 남는다.

이런 주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經驗的 지지를 모으지는 못한다. 이미 經濟的 生産에 대한 家庭의 支配가 出產力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서 태국 農村은 아직 自營農業인데 出產力 減少가 상당한 정도로 눈에 보인다. 또한 擴大家族과 핵가족 사이에도 出產水準에 별 차이가 없다. 이 주제에 대한 文化 橫的 研究에서도 핵가족과 다른 친척간의 접촉정도나 특성이 出產行爲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일반화된 사회적 경제적 理論으로 기대됐던 차이 出產力이 WFS 나 다른 最近 연구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민족, 종교, 언어적 要因에 기초한 國家內的 차이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WFS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再生產 行爲의 差異를 教育 및 經濟的인 民族的 特性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폭넓게 文化라는 범위에서 再生產 行爲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려는 비슷한 例가 많이 있다.

관련된 증거는 없지만 性이나 子女出產과 관련된 도덕적 傳統과 現代的 思考의 調和등과 같은 넓은 범위에서 가능한 原因을 찾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유럽이나 現在 開發國으로 봐서 종교, 언어, 지역등으로 막연하게 규정되는 國家 內 文化가 發展, 教育이나 家族計劃 서비스 제공에 관계없이 再生產 變化 時期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대부분의 差異出產力 연구가 橫的 연구로서 歷史적인 흐름에 대한 觀點이 없고 傳移段階일 것인 差異에다만 지나친 解讀에 의미를 둔다.

同一 文化圈에서 家族計劃과 이에 따른 結婚出產力 減少가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社會的 水準에서 變化의 근본적인 힘이 作用함을 뜻한다 하겠다.

個人 社會-經濟的 特性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이런 變化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합지 않다. 왜냐하면 傳移段階 社會에서 家口の 經濟, 社會的 경우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러 경제적 요인을 포함해서 人口가 모두 경험하는 공통적인 것에서 說明要因을 찾아야 하는데 個人的 經濟 환경과는 獨立的으로 널리 퍼져 있는 새로운 知識, 思考, 기대의 영향이 강력히 제시된다.

減少率을 봐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도의 북쪽지역과 같은 데서는 變化의 速度가 비교적 점진적인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빠른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10年內에 結婚出產力이 1/3 또는 그 이상이 공통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出產力 變化를 子女出產의 費用-利益의 變化 결과로서 주로 해석하려는 限定된 結論론적 米시경제이론을 보다 강력하게 거부할 수가 있다.

10년동안 社會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人口學的 反應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심하게 變化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死亡力 감소를 포함해서 구조적인 變化가 再生產 動機에 미치는 效果가 주요한 前兆를 갖을수 있음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接近法이 관찰된 出產力 傾向을 설명하기에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그것보

다는 기대, 지식, 태도, 또는 사회적 규범과 같은 쉽게 빨리 변할수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설명력을 찾아야 한다.

出産 選好 態度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많은 나라에서 出産力 變化의 速度가 적어도 일부가 새로운 知識, 態度, 思考의 轉化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분야에 대한 統察은 出産力 選好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잘 살펴봄으로서 얻어지는데 어렵고 불확실하기는 하여도 이 문제는 널리 연구되기 때문에 포기해 버릴 수는 없다.

調査로 알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子女에 대한 父母의 요구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再生産 기대를 달성할 수 있는 手段에 영향을 주는 要因의 相對的 重要性이다. 즉 많은 子女를 원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子女를 많이 두는가? 아니면 出産力을 통제할 수 없거나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가? 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이 지나치게 간단하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婦人 希望子女에 관한 직접적 증언으로 얻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하듯이 出産力 變化는 社會・經濟的 變化가 子女에 대한 요구나 수요를 줄이고 이것이 다시 아마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家族計劃과 그리고 결과로 出産力으로 옮겨간다는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면 希望子女數 選好에 대한 調査結果를 통해 그 과정을 추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大衆的 行爲의 변화나 數選好에 대한 個人 集團 社會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전에 전체 選好 子女數가 감소된다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WFS의 希望家族規模와 중전 지식태도, 실천 연구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낮아진 것이 없었다. 아시아에서는 .20 여년간 거의 4~5명이 꾸준히 希望子女數로 나타나서 行爲變化 以前에 기대되는 기대 出産力の 감소의 예는 찾기 어려웠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에서는 出産力 變化 以後에 希望家族規模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成功的인 家族計劃 경험자체가 가족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 變化 이전에 出産力 기대치가 낮아질 것이란 당초의 예측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出産 관련 選好에 대한 사회경제 및 기타 특성의 차이는 WFS 자료 分析結果 分明치 않다. 어디보다도 아시아 國家에서 夫婦의 教育, 都市, 農村居住 등의 特性에 따른 차이가 出産力 그 자체 變化보다도 더 적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도 평균 希望家族數가 3.5~4.5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서 3~7으로 폭넓게 나타난 婦人の TFR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出産力이 높고 낮은 集團의 差異는 婦人の 調査된 選好태도보다는 이런 태도에 맞추어 出産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에 달렸다고 하겠다. 避妊에 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不願 또는 잉여 出産에 대한 많은 문헌이 이

입장을 강화해 준다. 원치않은 出生率은 사회, 경제적 地位가 낮은 경우에 매우 높다.

選好態度에 관한 調查結果는 해석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 경시하는 일이 많은데 결코 간과될 일이 아니다. WFS 자료에서 충분한 경험을 얻는데 VCS(Value of Children Survey)에서도 避妊을 實踐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부부가 大家族 또는 小家族의 長短點을 計劃하고 數選好態度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數選好態度의 強度는 의문이지만 數選好 概念이 많은 夫婦에 있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

開發途上國에서의 希望出產力과 실제의 격차가 계속 존재한다는 증거에 특히 의심을 두어서 안된다. 美國이나 그밖의 開發國도 최근까지 不願 出產이 많았으며 그들 나라의 과거 20년간 出產力 減少도 避妊 기술의 발달로 이런 出產을 줄임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出產力이 希望하는 바 보다 높으며 또한 效果的 避妊方法의 출현으로 出產率이 급격히 많이 減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다.

要約하면 再生產 욕구 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 경제 조직의 구조적 變化와 出產力의 주요 연결로서 希望子女數의 變化에 의존한 出產力 減少 理論에 대항할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차라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과거 二十年間 子女의 希望은 늘 중간정도였고 거의 變化가 없었으며 출산력이 감소되기 전까지 그 수준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出產力이 높은 상태로 안정된 국가와 떨어지는 國家의 區別은

選好態度를 行爲로 환원시킬수 있는 性向에 달렸다. 이같은 환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는 뚜렷치 않지만 고유의 文化가 새로운 思想에 얼마나 개방적인가에 따라 조건화되는 避妊에 대한 態度가 出產力 變化에 重要요인이라는 점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結 論

出產力이 減少하는 시작 및 초기단계는 夫婦를 不願出產으로 부터 해방시키는 避妊이라는 주요 行爲의 改革의 受容에 의해 대개 결정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이 初期의 出產力 減少는 社會나 家庭의 經濟的 近代化와는 아주 미약한 관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傳統社會의 夫婦가 보다 많은 子女를 원하고 필요로 하며 出產力變化가 1 차로 社會, 경제여건 變化에 부응한 希望子女數의 저하에서 기인한다는 연구자와 정책수립가 사이에 만연된 가정에 대한 뒷받침이 거의 없다.

自然的 出產力 상태로 부터 調節된 出產力으로의 변형은 同一 文化 안에서는 퍼져가며 일반적으로 社會의 教育水準이 높고 都市化된 계급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農村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고에 보다 개방적이며 避妊方法에의 접근도 보다 손쉽다.

避妊이 전파되는 속도는 社會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많은 아시아 國家에서의 전파는 놀랄정도로 빠르다. 그러나 인도주변의 대륙과 같

은 곳에서는 變化速度가 고통스러운 정도로 느리다.

그런 國家間的 差異의 설명을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의 우선적인 주요 연구과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希望家族規模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避妊受容을 결정하는 태도나 가치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여러 관련된 문제가 있는바, 避妊에 대한 인식된 利用容易性(도구성), 避妊原理에 대한 도덕적 수용, 특정 方法의 受容과 거기에의 적합한 接近 등이다.

도구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특정방법의 고려나 接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많은 경우가 의식적 調節없는 再生産에서 出産의 의식적 規制로의 變化의 근본적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일단 이 장애만 극복하면 接近하는데의 장애(공급원에 가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實踐에 있어 중요한 장애로 보이지는 않는다.

出産調節에 관한 사고의 주된 說明的 역할을 하는 것의 하나가 出産力 減少에 대한 잠재 욕구의 先行的 存在이다. 이것은 다시 근본적 질문을 야기한다. 만약에 人間社會(아프리카 제외)가 低出産力の 잠재욕구로 특정지워진다면 왜 最近에 까지 避妊實踐이 없었느냐는 질문이다.

아마도 그 답은 最近의 두가지 歴史的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自然에 대한 人間の 支配가 先例없이 증가했다는 점으로 널리 퍼진 避妊의 출현도 이런 支配의 어쩔 수 없는 擴張이다. 둘째는 死亡力の 減少이다. 이것은 再生産 임무를 약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行爲양상을 유포시킨다.

國家別로 비록 出産力과 死亡力과의 연관이 약하긴 하여도 기대수명의 거의 전반적인 증가가 人口成長率에 대한 關心을 創出함으로서 避妊知識과 思考에 대한 전파와 정부가족계획사업에의 反應을 불러일으키는데 과거나 현재의 경험 모두가 이런 事業없이도 出産力 變化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러나 變化 初期의 時期나 變化速度에 미치는 事業效果에는 의심이 없다.

이 글에서 주장한 接近方法으로 出産力 變化를 완전히 說明할 수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家族計劃에 대한 생각의 變化가 子女에 대한 父母의 높은 요구수준의 감소없이 出産力 減少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調節手段을 강조하는 理論으로는 家族計劃이 확립된 社會에서의 子女出産을 說明하지 못한다. 사실 出産力の 變化는 두 단계를 거치는바, 첫번째는 대개 避妊의 출현결과로 나타나며 과대한 出産力을 제거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복잡하고 잘 설명되지 않는 要因들의 作用으로서 調節된 出産力 水準을 결정한다.

出産力 減少에 관한 一段階 理論은 再生産 行爲의 복합성을 說明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한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많은 國家에서 出産力은 대체수준 또는 그 이하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의 일부지역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며 그러나 家族計劃 實踐이 만연되어 있다고 해서 出産力の 매우 낮은 水準으로 떨어지리란 보장은 할 수 없다. 家族計劃이 확고하게 실시되면서도 希望 및 실제 出産水準이 2子女 以上으로 남아있는 나라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

리랑카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나라에서는 避妊實踐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出産力 減少가 TFR 2.5~4.5 수준에서 고원현상을 나타내는 곳이 있다. 현재의 知識으로는 避妊이 實施되는 몇몇 社會에서 出産水準이 중간정도인 理由를 추측할 수 있을뿐이다.

政策的 意味

結婚出産力 決定要因 分析은 政府에 出産力を 자신있게 低下시킬 수 있는 몇몇 社會-경제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길고 넓게 볼 때 새로운 지식과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教育이 再生産 變化에 주요 社會要因으로 등장함과 學校教育의 擴張이 出産力에 合理的인 効果を 보장한다. 그러나 世代間的 격차로 어려움이 있다. 현 자료에 따르면 出産力 低下가 기대되는 것은 오늘날 學校學生이 父母가 된 다음이다. 그러나 成人教育和 地域社會 運營도 짧은 시간에 公式的 學校教育和 같은 効果を 지닐 수 있다고 믿을만한 充足한 理由가 있다.

짧은 시간안에서 出産力 調節手段의 증진도 出産力 減少에는 더할 나위 없는 効果を 가져온다. 아시아의 몇 나라에서는 出産調節이 완전히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으며, 夫婦가 出産터울 조절을 위해 노력하며, 家族計劃은 한가지 方法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政策은 出調의 조절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하기도 쉽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하고 동시에 家族計劃 서비스의 質

과 폭을 改善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말다브 地域의 경험으로 봐서 개발이 안된 곳에서도 成功的일수 있음을 알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나 家族計劃 原理에 대한 受容보다는 특히 가난하고 教育을 잘 받지 못하고 農村에 거주하는 出產 改革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擴大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人口政策樹立과 事業施行에서의 弘報・啓蒙・教育

이 글은 ESCAP Reserch Lead No. 27 인 “IEC in Population Policy Formulation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을 번역한 것이다.

目 次

情報管理	65
IEC 活動	68
現在問題	69
結論	72
参考文献	74

要約 및 政策的 意味

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 과거 二十年동안 人口問題에 관한 大衆의 認識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같은 認識을 가져온 情報은 주로 人口問題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온 감정적 호소였다.

그러나 이런 情報만으로는 정부계획수립자, 정책수립자, 결정자와 같은 使用者에게는 한정된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다. 그들은 人口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資料蒐集과 연구결과에 기초한 科學的 情報을 필요로 한다.

人口問題에 대한 認識의 증가와 함께 국내와 다른나라에서 왔거나 일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人口研究가 量이나 質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生産的 연구와 政策的 目的으로의 有用性 間에는 메울수 없는 罅이 남는다. 人口研究結果가 發刊될때는 效果的 配布를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구의 量과 質이나 使用者에 대한 結果의 配布라기 보다는 情報가 제시되는 형태와 관계가 깊다. 형태란 使用者가 情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며 特定人口問題와 관련이 있도록 해야 한다. 例를 들어서 發刊된 情報가 아주 기술적인 言語로 쓰여졌으며 人口問題와는 관계없이 제시되었다면 설령 읽힌다고 해도 效果를 기대하기 어렵다.

情報의 效果的 유포는 자주 기술적 자료나 연구결과 의 配布와 혼동된다. 效果的 정보의 유포는 配布의 훨씬 많은 그 이상을 포함한다. 이것은 特定 研究結果나 그런 情報 및 그 의미를 個人 受容者의 特定 욕구에 알 맞도록 각기 다르게 포장하여 個人 受容者의 注意를 끌자는 하나의 과정 이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우선 소화되어야 하며 변형

된 다음에 目標로 하는 受容者の 욕구에 알맞도록 각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보통 ‘재포장’(Repackaging)이라고 한다.

ESCAP에서는 1987年8月 人口委員會 5차 회의에서 政府나 地域社會가 人口問題 解決에 필요한 IEC의 役割에 대한 연구과정 측면에 중점을 둔 하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여기서는 效果的인 人口情報體系의 관리가 이 지역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하나라고 보았다. 대개 國家人口事業에서 人口에 대한 國家的 知識을 구성하는 有用한 資料와 情報의 체계적 조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오직 大衆 弘報와 人口教育만을 강조한다.

전달하는 情報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最近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人口教育 資料나 動機化 캠페인 內容은 國家 知識 베이스에 기초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國家 知識 베이스는 人口政策과 事業을 확립하고 시행하는데 科學的 技術的 기초가 된다.

IEC라는 용어는 人口分野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말이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때로는 폭넓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말은 國家 人口事業의 맥락에서 家族計劃 受容을 증가시킬 목적의 ‘認知創造’와 動機化 活動을 뜻한다. 과거 二十年 以上 동안에 아시아 國家 政府는 그들 人口事業의 일환으로 3가지 情報 관련 部署를 설치하였다. 설치 순서대로 보면 IEC(Information Education & Communication) 또는 IEM(Information Education & Motivation) 部署, 人口教育部署 그리고 人口情報센터이다. ESCAP 발표에 따르면 IEC란 용어는 아시아·태평양 地域 人口情報 관리의 기본적 기구체를 형성하는 이 세가지 部署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解釋된다.

國家 人口情報體系의 效果的 관리에는 體系를 구성하는 IEC부서의 役割에 대한 이해, 이들 部署間의 調整, 지속적인 지지 확인, 새로운 人員에 대

한 訓練 및 기존 人員에 대한 技術教育의 向上, 人口관련 國家 知識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점진적인 努力 등이 포함된다.

人口情報體系의 모든 部署는 특정 受容者가 使用할 수 있는 형태로 人口資料와 情報을 처리, 또는 재포장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人口部署, 統計學者, 受容者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책, 논문, 서류 등을 볼때 資料와 情報의 最終 使用者를 고려하도록 訓練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國家 人口情報網이 人口교육과 커뮤니케이션部署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國家 人口情報體系 調整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이런 국가의 기구가 아시아지역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人口情報網(POPIN)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人口情報體系의 活動範圍를 보다 向上시켜 간다.

國家 人口情報體系에 적절한 現在 情報技術을 導入하는 것도 관련 문제의 하나이다. 여러나라에서 人口情報센터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들여 놓았으며 ESCAP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며 그렇지 않는 다른나라에서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國家 人口情報體系가 發展해감에 따라 情報을 다루는 전통적 方法을 차츰 非效果的이며 값도 비싸게 든다. 수동적 정보처리 방식에 기초한 성가신 방법과 결정에 필요한 적당하고 시기적절한 자료와 情報의 결여가 아시아·태평양 地域 경제·사회 發展에 공통적인 장애물이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구자료 수집과 정보에 대한 國家 投資의 기대효과를 완전 실현하고 人口事業 IEC 부서의 效果性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화되고 조정된 國家 人口情報體系의 맥락에서 정보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人口政策樹立과 事業施行에서의 弘報·啓蒙·教育

家族計劃事業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國家 모두에게 믿을 만한 새로운 情報을 알맞는 형태로 시기 적절하게 배포해야 한다.

이일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형태의 정보단위와 여러가지 기술적 재능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 필요하다.

政策樹立과 事業施行에 요구되는 情報은 國家政府 最高 決定者에서 최말단의 실제 人口事業 成功을 결정하는 부부의 避妊 受容者에 이르기 까지 모든 使用者를 고려해야 한다.

國家 지식 베이스를 開發하고 그 資料와 情報을 分析,결합하고 관련 결과를 적절한 형태와 미디어를 통해 시기 적절하게 배포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政策決定者와 人口事業關係者에게 계속 자극을 주게 된다.

資料나 情報은 社會的活動의 기초가 되며 또한 그 부분으로 구성된다. 확실한 결정은 정확한 情報에 달려 있기 때문에 效果的으로 情報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능력은 發展段階 過程上 필수이며 또한 發展의 指標이다.

國民의 行動이나 國家人口政策 및 事業의 構想과 施行이 얻어진 知識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시아 地域 國家에서는 政府人口事業의 일환으로 3가지 독특한 기구를 設立하였다. 그것은 國家人口情報센터, 人口教育部署, 커뮤니케이션部署이다. 통상 組織의 순서는 IEC

(弘報, 教育, 커뮤니케이션) 또는 IEM(弘報, 教育, 動機)部署, 人口教育部署 그리고 國家人口情報센터이다.

“弘報, 教育和 커뮤니케이션(IEC)” 용어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때때로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가장 흔하게는 政府人口事業의 맥락에서 認知創造와 動機化를 家族計劃 受容을 증가시킬 목적의 위한 活動을 가리킨다. 여기서 넓은 의미로 실제 活動에 기초하여 위에서 말한 3가지 타입 情報 관련 部署를 모두 포함하여 말하느바, 아·태地域 人口情報 管理를 위한 기본 구조적틀이 된다.

다음이 이 情報 部署의 기능이다.

- 國家人口情報센터: 科學的 기초적 情報를 수집, 조직, 보관, 재생, 분석, 결합하여 원래 형태나 처리 또는 재포장된 형태로 정책결정자, 사업수행자, 연구자, 교사, 대학상등에게 배포하는 기능
- 人口教育部署: 科學的 기술적 정보를 學校 또는 學校 以外 人口事業에 맞도록 재포장하는 기능
- 커뮤니케이션部署: 科學的 기술적 정보를 一般 大衆에게 알맞는 형태로 재포장하며 이를 매스미디어나 직접 캠페인을 통해 배포하는 기능

情報管理

國家 知識 베이스는 國內의 人口 현상에 관해 알려진 것으로 구성되며 人口 政策과 事業施行의 기초가 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國

家 情 報 資 源 을 그 나라 지식 베이스가 人 口 와 發 展 문제를 해결하는데 効果的으로 活用될수 있도록 活性化시켜야 한다.

國家 人 口 情 報 센 타 의 役 割 은 人 口 情 報 를 政 策 결 정 자, 事 業 計 劃 樹 立 者, 施 行 者, 研 究 者 에 게 각 각 적 합 한 형 태 도 配 布 하는 일 이 다. 그 러 나 情 報 를 배 포 하 기 전 에 몇 단 계 를 거 쳐 야 한 다.

국가 안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外國에서 생산과 관련 科學的 技術的 人 口 情 報 를 찾아 모으고 조직화해야 한다. 포괄적이며 잘 조직화된 國家 人 口 知 識 베이스를 만들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人 口 資 料 와 연구의 지적 생산물을 찾아서 蒐集하는 체계화된 강력한 정책의 추구가 이 人 口 情 報 센 타 의 책 임 이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처와 대학이 그들 나름의 人 口 相關 도 서 를 갖추고 있는바, 이런 곳에서는 國家 人 口 情 報 센 타 가 國家 네트웍의 초점이 되어 國家 人 口 情 報 網 의 위치에 불구하고 필요할때는 努力의 중복을 감소시키고 利用可能한 資 料 와 情 報 에 의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國家 人 口 情 報 센 타 內 人 口 圖 書 室 의 기능 중의 하나는 現在 와 未 來 世 代 의 연구자, 정책수립자, 事 業 計 劃 樹 立 者 에 게 國家 지식 베이스를 완전하고 접근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구분야 국가 정보 베이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國家 人 口 情 報 센 타 의 中 間 目 標 일 뿐 이 다.

人 口 關 聯 文 獻 에 대해 자주 반복되는 主 題 는 政 策 과 事 業 을 評 價 하고 政 策 을 樹 立 하며 事 業 關 連 문제를 해결하는데 利用可能 資 料 와 情 報 를 제대로 使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資 料 와 정보를 제대로

活用하지 못한 결과도 事業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료수집과 연구에의 막대한 투자의 기대효과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資料와 情報을 원래 형태대로건 적당히 처리하여 재포장한 것이건 정책수립자, 사업계획자, 사업시행자 및 연구자가 정책수립, 사업계획과 시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이 國家人口情報센터의 궁극적 目標라 하겠다.

人口教育部署의 役割은 알맞는 형태의 人口情報를 學校와 學校以外 人口教育時 배포하는 것이다. 學校에서의 人口教育은 우선 맨먼저 敎課過程을 開發 活動이다. 人口教育事業의 기능은 學生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合理的이고 책임있는 태도와 행위를 開發시킬 목적으로 家族, 地域社會, 國家, 世界の 人口상황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學校以外 人口教育事業은 學校보다는 教育的으로 오리엔티드된 組織을 利用하여 사람들에게 人口規模, 成長, 構成, 分布 및 관련 문제의 特性과 結果를 알리고 가리키며, 또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을 모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部署의 役割은 사람들이 國家人口政策과 보조를 맞춰 새로운 태도와 실천을 폭넓게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人口情報를 적절히 재포장하여 일반 매스미디어나 다른 직접 캠페인을 통해 배포하는 일이다.

ESCAP 地域에서 國家人口事業의 커뮤니케이션 要因은 IEC 또는 IEM 으로 다양하다. 이들 部署의 機能은 弘報物을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인데 이들 弘報物의 內容은 地域, 社會, 文化, 종교적 상황이 알맞도

록 人口資料와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部署는 最新 研究結果 및 人口資料에 나타난 人口狀況과 일치하면서 國家人口政策과 부합하는 대중적 정보를 여러가지 제시방법, 미디어, 채널, 호소방법 등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 세가지 情報 관련 部署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國家 人口事業의 弘報, 敎育, 커뮤니케이션 要素이다. 각 部署는 각기 다른 종류의 기술, 능력을 지닌 人力, 物理的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한다. 또한 社會 각 分野의 使用者에게 그들이 필요로 할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效果的 國家人口情報體系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굳건한 제도적 뒷받침의 환경과 더불어 각 部署는 最高 指導者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國家人口事業의 情報管理는 잘 조직화된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國家人口情報센터 內 知識 베이스를 산출하게 된다. 이 센터는 國家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人口敎育, 커뮤니케이션 部署에 계속해서 情報를 준다. 이들 部署는 이 정보를 學校 및 學校 以外의 事業, 그리고 大衆的 使用에 알맞도록 재포장한다.

IEC 活動

歴史的으로 볼때 弘報, 敎育, 커뮤니케이션 活動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장애를 받아 왔다. 즉 國家人口事業 중 이들 다른 部署의 役割에 대한 물이해, 적절히 訓練받은 人員의 결핍, 재정적 뒷받침의 결

여, 이들 부서와 여러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조정 결여, 어떤 경우에는 資料와 情報의 부족 또는 이들 정보와 자료의 活用 부족, 이들 活動에 대한 最高 통치자의 지지 결여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의 대규모 國家人口事業은 1964 ~ 1965 기간에 인도에서 실시되었으나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대규모 大衆弘報를 하지 못하였다. 情報와 動機化 作業을 주로 클리닉 人員과 소수 現地 教育要員의 對人 커뮤니케이션 活動에 의지했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중앙에 매스컴 部署를 설치하고 家庭訪問 人員도 증가시켰다. 이같은 改革은 곧 教育者和 教育制度의 관여를 유도했다. 다른 事業도 이와 이 비슷한 事業經驗에서 얻는바가 많다. 주요 事業마다 중앙에 커뮤니케이션 部署를 두었으며 人口教育이 學校教育 및 學校 以外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같은 教育과 커뮤니케이션 活動에 뒤이어서 1974 年에 韓國家族計劃 研究院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처음으로 國家人口情報센터가 생겼으며, 以後 11 年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쉬, 네 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의 12개 ESCAP 국가에 유사한 센터가 생기게 된다.

現在 問題

어떤 理論이나 연구와 실제에서 배운것은 이를 문제해결에 응용하려는 사람이 使用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켜야 하는 문제에 봉

착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사회, 경제 분야에서 요구되며, 더욱이나 人口分野에서는 결혼, 性, 家庭生活과 관련된 태도와 행위 변화 노력에 관여된 민감성 때문에 더욱 더 강하다.

ESCAP 지역에서는 과거 二十年間 人口問題에 관한 政府와 國民의 태도, 行爲變化에 미치는 情報의 주된 役割과 관련하여 知識이 상당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情報 役割에 관한 知識증가가 전반적인 情報管理 接近法에 대한 이해나 지지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많은 國家人口事業에서 大衆弘報와 人口教育에만 강조를 두고 있고 人口關聯 國家 知識 베이스를 이루는 利用可能한 資料와 情報의 체계적 조직화에는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人口教育物과 動機化 캠페인 內容은 그 전달코저 하는 情報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最近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國家 知識 베이스에 의존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國家 知識 베이스는 人口政策과 事業이 구상되고 시행되는 科學的 기술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國家 人口 및 開發事業의 施行을 개선하기 위한 國家 人口情報體系의 效果的 管理이다.

國家 人口情報體系의 效果的 管理는 이 體系를 구성하는 弘報, 教育, 커뮤니케이션 部署 役割에 대한 理解, 이들 部署間의 調整, 지속적인 지지, 個人的 資源의 訓練과 기존 人員의 기술 向上, 그리고 人口關聯 國家 知識 베이스를 체계적으로 組織化하려는 점증적 노력이 포함된다.

이 센터는 人口情報나 資料를 찾아 얻어내고 조직화하는데 있어 자발적으로 연구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그들의 知的生産物을 이 센터에 보관케 함으로서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런 것을 강제로 하게 하는 보관법이나 규칙을 만들수도 있다.

國家人口情報體系의 모든 부서가 특정 독자가 사용가능한 형태로 人口情報나 자료를 처리, 재포장할 책임을 지닌다. 이들은 여기에서 고도로 訓練된 人口學者, 統計學者, 연구자에게 책이나 논문 또는 연구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마지막 자료와 정보의 利用者를 생각하게 함으로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

國家人口情報網의 人口教育和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토록 擴大시킴으로서 國家人口情報體系를 보다 잘 조정할 수 있다. 이 地域 네트워크는 아시아·태평양 POPIN이나 아시아 POPIN 活動에 참여하는 것도 國家人口情報體系의 능력을 훨씬 向上시키는 길이다.

적합한 現代 情報 기술을 國家人口情報體系에 도입하는 것도 관련 문제의 하나이다. 마이크로컴퓨터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나라의 國家人口情報센터에 도입되었으며, ESCAP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른나라의 센터에서도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다.

國家人口情報體系가 점차 커감에 따라서 정보를 다루는 전통적 방식은 점차로 非效果的이며 값도 비싸진다. 수동적 정보처리 방식에 기초한 성가진 과정과 적당하고 시기적절한 결정과정상 자료와 정보의 부족도 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주요 공통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結 論

最近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나라에서 人口 資料와 情報에 대한 量과 利用可能性이 상당히 向上되었다. 그러나 資料蒐集의 결과나 연구가 현 상태로는 政策樹立家나 計劃樹立者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적 잡지나 단행본 및 미발표 논문의 보고서 형식으로 출판되고 있다. 고도의 기술적 형태의 연구보고서는 일반 정책수립가나 계획수립가가 읽을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에 관련된 量的 다양성이나 확실성 수준 등도 또한 使用上 한계를 준다. 뿐만아니라 計劃樹立家나 計劃樹立者는 科學的 기준에 의해 연구의 質을 判斷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뿐 아니라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동일주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知識의 맥락에서가 아니면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결정가에게 有用하려면 처리되고 재포장되어야 한다. 만약에 決定이 특정 政策이나 事業의 약간의 조정일 경우에는 연구발표의 일반적 체제로도 그런대로 관련연구결과를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정이 폭넓은 범위에서 장기적 計劃과 같은 것이라면 여기에 맞게 스케일을 넓혀서 政策樹立家나 計劃樹立者에게 맞도록 정보를 처리 또는 재포장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人口 및 發展 傾向에 관한 국가의 정보 및 그 상관성을 계속해서 分析, 종합해야 하며 政策과 事業構想 및 向上에 갖는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 결과를 人口教育 및 大衆弘報 活動에 使用할 수 있게 처리, 가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人口資料 蒐集과 研究의 國家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를 모두 實現시키고 이지역 國家人口情報事業의 구체적인 3 가지 弘報, 教育, 커뮤니케이션 部署의 効果性を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되고 조정된 國家人口情報體系 맥락에서 정보관리에 관한 포괄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參考文獻

- ASEAN Population Co-ordination Unit. *Guidelines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ASEAN population/rural development IFC materials*. Jakarta, 1981, 20 p.
- Batscha, Robert M. Helping policymakers use the resul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research.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9 (2): 21-24, 1977.
- Bautista, Paulina. *A review of trends in family planning information campaigns in some Asian countries*.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stitute of Mass Communication, 1972, 34 p.
- Beal, Georg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mes*. A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 Module text. Honolulu, East 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5, 222 p.
- Berelson, Bernard. *Where are we going? an outline*. Working Paper No. 2, New York, Population Council, 1977, 17 p.
- Chabra, Rami. *Fertility and the family: changing conditions and percep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1984, 31 p.
- Echols, James. *Making population-family planning research useful — the communicator's contribution*. Conference Summary Report. Honolulu,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4, 64 p.
- . *People and population*. A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 Module Manager's Guide. Honolulu, East 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5, 17 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population IFC activities in the region*. Bangkok, 1978, 18 p.
- . *Report of the Asia-Pacific POPIN expert working group on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ing*, Beijing, 16-20 October 1986.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83 Bangkok, 1987, 54 p.
- . *Report of the ESCAP/POPIN expert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of population information centres and networks*, Bangkok, 20-23 June 1984. Asian Population Studies Series No. 60. Bangkok, 1984, 55 p.
- Feliciano, Gloria.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information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of the ESCAP region".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Colombo, 20-29 September 1982, 30 p.
- Johnson, Bert W., Frank Wilder and Donald J. Bogue.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n family planning: a guide for national a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3, 207 p.
- Kincaid, Lawrence. "Family planning continuance: new methods for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tervention". Paper presented at an ESCAP meeting o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continuation and discontinuation of family planning practice, Pattaya, Thailand, 2-8 November 1982, 36 p.
- Konoshima, Sumiye and others. *Using information for problem solving*. A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 2 Vols. Honolulu,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7.
- Middleton, John. *Planning communication for family planning*. A Professional Development Module. Module text. Honolulu,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5, 206 p.
- Rao, T.V.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al needs for motiv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spects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In *Health and population: perspectives and issues*, pp. 205-219. New Delhi,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1978.
- Saunders, Lyle. *A report on IEC strategies: their role in promoting behavior change in family and population planning*. Honolulu, East-West Communication Institute, 1977, 203 p.
- UNESCO. "Informati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n support of population programmes: the Asian and Pacific experience". Note presented at the Third Asian and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 Colombo, 20-29 September 1982, 14 p.
-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Family planning in the 1980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ew York, 1981, 71 p.
- Wang, In-foung. *Management of family planning programs in Asia: concepts, issues and approaches*. Kuala Lumpur, Asian Centre for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76, 423 p.
- Zhipci, Zhao. "IIC management in China's population programme" *Population Manager* 1(1): 34-36, June 1987.